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정신계 물질계 둘 아니게 봐야 지혜"

☞ 15면에서 계속

히려 단 집에서 훔쳐가지고 온 것을 그 집에 도로 놓고 돌아섰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참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보면 또 '아이고 이걸 뜨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 것을 잘못 썼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건 그릇된 일이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잘 썼든 못 썼든 다 거기에다 일임해서 놓으시고 그냥 여여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떠한게 닥쳐도 그냥 끄떡없이 가다가 그게 다 풀려서 "스님,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옳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줘서, 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방황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 애석해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고 뛰는 것이 보기 안돼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어떠헌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그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 '언짢은 일이 생긴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방황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냥 방방 뛰어요.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니 풀릴 수가 있나요. 옭아매서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옭매듭이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내가 대신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해야 나도 같이 해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열지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그래요.

임제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수 있지만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오히려 뺏어 올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것 없이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낮은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도 '저 스님이 말로만 저러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마 모든 것을 본다면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가 차츰차츰 익어간다면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지만 자꾸 익히면 심안으로 보고 심안으로 듣게 됩니다. 거기서 좀더 하다보면 법안으로 보게 됩니다. 나중엔 불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르 돈오점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오는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점수는 탄생을 해서 길러지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귀신 방귀씨는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아주 잘 먹여서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귀신 방귀털을 가지고 기르면 잘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귀신 방귀털이요. 그 뜻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불안으로 듣고 불안으로 보면서, 즉 말하자면 우주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일체로 보고 모든 것을 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빚을 졌다, 미래에 빚을 진다도 없고, 현재에 업이 많다 또 고뇌가 많다, 병이 많이 생긴다, 죄를 지었다 이런 것도 없고 유전성, 영계성, 이런 것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내 집이 주장자가 딱 서있는데 어디를 감히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그게 요술방망이인데, 요술방망이를 누가 뺏어가고 또 뺏기고 합니까? 그것은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항상 말로만 배우지 마시고 그 말을 따라서 뜻으로 행하시는데 응용해 보세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말을 한 대로만 듣고선 말을 옮겨서 말로만 하려고 한다면 전부 허망한 겁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미생물 하나라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고 하셨겠습니까. 왜? 거기서부터 쭉 거쳐 올라와서 탁 펴놓고 보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 올라온 거거든요. 벌레,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됐을 때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내 몸 네 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이게 공체며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뼈 한 무더기에 다 절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지 그것을 듣지도 못했다면 실감이 안나요. 들었으니까 알게 됐고, 알았으니깐 그대로 이행하게 되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난 믿어요. 여러분이 몸뚱이 하나를 놓고 볼 때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코도 믿고 저도 믿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눈만 믿고 '아 이게 전부 공체가 동시에 움죽거리는구나. 이 몸뚱이 하나가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듣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몸뚱이 하나의 개체가 전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죽거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건 내가 먹었다, 내가 했다, 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보충을 하고 작용을 해줘서 움죽거리게 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산다고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생명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해주니까 움죽거리는 건데 보는 것도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 법안이라고 하는 것, 심안이라고 하는 것, 혜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더불어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 근기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말 많을 것도 하나도 없지요.

어느 신도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직접 아파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도 죄가 됩니까? 가난한 것은 과거에 부자로 살 때 남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봤기 때문에 또 한바퀴 돌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부자로 살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또 가난하게 살 때도 앞서에 공부를 하지 않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게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남을 업신여기며 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생긴 거구나. 그것이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공부로 아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 스스로 매듭이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은 그 풀리는 소리를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그렇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처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처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심봉과 바퀴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만약에 바퀴에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심봉과 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거기에다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지요. 돌아가지도 않는데다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꼭 비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죠.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오게 되면 안오는 거고. 내가 했다 라고 세우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 최주현

둥근원 칠층탑 쌓는 이유

문 저는 진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지금 불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지붕에 둥근 원으로 칠층탑을 올린 큰스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 탑도 없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 말씀드리죠. 그것도 말하자면 방편입니다. 그 칠탑도 여러분의 몸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지요. 육 속에 진짜 자기인 주장자가 있기 때문에 탑을 하나 세우고 칠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칠탑이라고 그러는 것도 여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습니다만 또 칠탑이 한탑이요, 한탑이 칠탑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탑도 없습니다. 너무 탑이 많아서 '칠탑이 있다, 한탑이 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둥근 그 탑을 칠탑으로 올린 것은 여러분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써 세운 겁니다.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동시에 응신으로써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 탑도요 가만히 있으면 칠탑도 따로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탑이 있습니다. 또 둘 아닌 마음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현신도 거기 계실 것이고, 부처님도 계실 것이고, 법신도 거기 계실 것이고 이 허공에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공부하는 분들은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 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두 법당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구요. 그러나 나중엔 말없는 그 무심으로써 연기법으로,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 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죠. 여러분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이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놓고 삼배를 올린다면 그 얼마나 스승의 날을 멋지게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구요,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지붕에 칠탑을 해놓은 것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를 열고 싶습니다

문 첫번째는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은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번째는 무심으로 관하다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며, 이 지혜를 어떻게 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육바라밀이 따로 없고, 지혜가 따로 없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가시는데 마음쓰시는 것이 지혜로우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속에 진의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로운 것이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물질계만 쓰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게 되죠. 또 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공덕이 될 수가 없지요.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인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 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지요. 그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며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생·공심·공용·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공심으로써 쓰는 것이 지혜이며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악이 한마음에 있다는 뜻

문 스님의 게송으로 이루어진 많은 선법가들 중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미에는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 이렇게 맺음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스님께서는 '선악의 양면도 다 놓아라. 둘로 보지 말아라' 라는 평등공법을 설법해 주셨습니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 는 법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법해 주십시오.

답 말이야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부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악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것을 쓸 때는 어떻게 되나. 주는 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하죠. 그런 이치를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나쁘고 선한 것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고 하죠. '내가 악한 것을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남이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그러지 마시고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이렇게 그냥 웃으며 화를 내세요.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이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잘못된 걸,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나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지요. 그럴 때는 불쑥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개의치 마시고 업이다, 유전성이다, 영계성이다, 인과성이다,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몰록 놓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몰록 놓아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도 '아 여기 삼살방이 들었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 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하구선 거기다 몰록 놓고만 사신다면 차차 살다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야 참 이거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박히지요. 그럼으로서 나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세워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것은 다 놓고, 놓는다기 보다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했든지 잘못 했든지 나쁘게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는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사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철부지 애처럼 말입니다. 철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깐 어른이 탁 잡지요.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 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다녀요. 보디가드도 돼줄 수 있고, 지켜주고, 이끌어 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관세음보살도 돼주고, 지장보살도 돼주고, 칠성부처도 돼 주고, 주해신도 돼주고 주산신도 돼주고, 모두 어떤 것 안돼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 줘요.

근데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그것은 다 돌보지를 못하지요. '저거는 잘났다니까 잘난대로 그냥 살게 둬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냥 아무 잘난 생각없이 그냥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한군데만 믿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아만·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는 생각을 놓고 그냥 편안히 여여하게 사세요.

"제 주인 챙기지 못하니까 집이 비어 망가지죠"

"옭아매서 쥔것 놓지 않으면 옭매듭 풀릴까요"

잘난 생각없이 한군데만 믿고가면 관세음도 돼주고 지장도 돼주고 응신이 돼서 다 이끌어 줍니다

협 찬 한마음